

이제 비로소 활기 띠는 저작권 수출

일본을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야

출판계의 무역역조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문예물의 경우에도 형식적인 번역 수준에 그치고 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과 대만으로 수출된 몇몇 책들은 양질의 콘텐츠와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번역가 양성과 출판사 인센티브 등 좀더 체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출판계의 '무역역조'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1990년 이후 국내에 번역된 외국 도서가 2만 6018종인 데 비해 번역 수출된 국내 도서는 200종에도 못 미치고 있다. 약 130대 1에 이르는 극심한 무역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번역·수출 활기 띠고 있어

이런 현상은 관세청 집계에서도 드러난다. 이 집계 따르면, 2000년도 인쇄도서 수입액은 107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7.7%가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652억원으로 52% 감소했다. 또한 한국출판연구소의 <2000 출판분야 수출입현황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저작권 수출 건수는 매년 수십권 정도에 불과하며, 집계하기조차 어렵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문예물과 아동서적, 그리고 컴퓨터 관련 서적 등이 활발한 해외 진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예물의 경우 지금까지 국내 도서의 저작권 수출은 몇몇 작가들의 작품이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등지로 번역·수출되기는 했으나 초판 2천부도 팔리지 않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 문예작품의 해외 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프랑스 절마 출판사가 김유정의 단편집 <소나기>를 번역·출간해 초판 2천부가 거의 매진될 정도로 호평받았다. 또한 박상연의 <DMZ>(민음사)와 이영도의 판타지 소설 <드래곤 라자>(황금가지)도 각각 일본과 대만으로 판권을 수출했다. 그리고 <가을동화>(생각의나무)도 대만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문예물이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한 데 대해 백원근씨(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는 "양질의 콘텐츠와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만 있다면 우리 출판물도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한다.

출판관계자들은 외국인 전문 번역자 양성을 위한 투자나 한국 도서의 외국 출판에 따른 외국 출판사의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 우리 출판물의 번역과 해외 수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수출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는 저작권 에이전시가 주로 저작권 수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프랑스의 경우 번역작품에 대해 제작비의 최고 6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작품의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80%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에디시옹'이나 '프랑스 도서수출공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시장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14일 한국문화번역원을 설립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우리문학의 번역·출판 및 세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희 영미권 담당팀장은 한국문화번역원의 사업 방향에 대해 "국내의 번역 전문가와 출판사, 재외동포 문학인과 협력해 해외 저명 출판사를 활용한 출판망 구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해외 출판에도 직접 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서적과 컴퓨터 서적도 해외 수출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미마주의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이호백 글·이억배 그림)과 비룡소에서 펴낸 <술아씨방 일곱 동무>(이영경 글·그림), 길벗어린이의 <만화네 집>(권운덕 글·그림)은 일본으로 수출돼 2만부 이상 판매되는 좋은 실적을 올렸다.

길벗어린이의 고대영 주장은 "일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우리와 감수성이 비슷하고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일본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 일본을 발판으로 삼아 유럽으로 진출하고, 다시 미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보림의 최정선 편집부장은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책에 대한 투자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어린이책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수준 이하의 외국 어린이 책을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진닷컴과 삼각형 등 컴퓨터 관련 서적 전문 출판사들도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진닷컴은 1998년 인도에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일본과 대만, 중국에 5~6종의 책을 수출했다. 특히 중국의 청년출판사와는 연간 50종을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심호정 홍보팀 주임은 "문예물이나 어린이책과는 달리 번역의 어려움이 덜한 컴퓨터 서적은 수출이 쉬운 분야"라고 말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의 틈새 시장을 노리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최갑수 기자